

코로나 알바 자라도 '지인 찬스'...취약계층만 '속얇이'

광주시 긴급생계자금 업무 지원 전담 알바생 227명 선발 논란 월급 223만원이나 되는데 공모절차 없이 채용...특혜성 비난 전남 목포·여수 등도 알음알음 선발...취준생들 박탈감 키워

광주시와 전남지역 일부 시·군들이 '코로나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고도 없이 알음알음 방식으로 채용, 취업난에 휩들여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특히 기존 동사무소 근무 경험을 갖췄거나 지인 추천 등을 받은 인력을 채용하는 '특혜성' 채용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 한파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취업 준비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업무지원 전담 인력'으로 227명을 자치구별로 자체 선발 토록 해 현재 동사무소에서 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생계비, 실직·무급휴직자생계비 신청 안내와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22일 근무하며 223만7000원을 지급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때문에 모집 문의가 쇄도했지만 동사무소와 '알음알음'한 인력으로 채워지면서 공모로 인한 경쟁률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긴급 인력 수월 방침'에 따라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자다보니 어떻게 채용됐는지, 적절한 인력이 뽑혔는지도 불투명하다. 북구는 64명을 이런 방식으로 채용했고 광산구 53명, 동구 30명, 남구는 38명을 공모 절차 없이 고용했다. 5개 자치구는 '사익추구를 금지하고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보유한 적합자를 채용하라'는 광주시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투명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서구 농성 1동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은 30~40대 가정주부를 채용했다. 서구 금호 2동에서는 사회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 2명을 채용했고

풍광동도 비슷한 인력을 선발해 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추천조차 받을 수 없었으면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대로라면 이른바 동사무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인 찬스'를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은 8시간씩 22일 일하고 200만원 남게 받는 '질 좋은' 일자리를 꿈도 못 꾸는 셈이다. 광주 뿐 아니라. 전남지역도 비슷하다. 목포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전담인력 3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3개 동에 배치, 업무를 맡고 있다. 목포시 유달동 사무소의 경우 동사무소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과 동사무소 지인 추천을 받은 유지원 교사 경력을 갖춘 30대를 채용했다. 목포시 죽교동사무소도 동사무소 지인 추천으로 20대 대학생 3명을 채용했다. 여수시가 5일 간 공고를 내고 145명의 지원자 중에서 경찰까지 입회한 상태로 44명을 선발, 각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등 순천·장성·담양 등이 공모 절차를 거친 것과도 대조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쟁률이 4대 1을 넘어가고 행정업무에 투명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이외 지역인 수원·파주 등도 광주·목포 등과 달리, 비슷한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해 광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 오는 5월 1일부터 운영할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764명을 22일까지 접수받아 선발하기로 하는 등 기존 '3대 긴급생계자금 업무지원 전담인력'과 선발 방식이 다른데도,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기존 공공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만든 사업이지만 '3대 긴급생계자금 업무지원 전담인력'은 긴급하게 진행해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죄수복 동상 전시·소복 시위...광주는 '전두환 맞이' 분주

27일 광주 법정 출석 앞두고 5월단체 등 퍼포먼스 준비

전두환(89)씨 광주 출두를 앞두고 5월 단체들은 중심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1년 만에 오는 전씨를 성대(?)하게 맞을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도 1년 전 느슨한 경호로 빚어진 불상사 등을 막기 위해 초강조 상태다. 5월 단체들은 소복을 입고 시위를 하거나 '전두환 동상' (사진)을 가져와 전시하는 등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다. 우선, 5·18 3단체인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퍼포먼스는 전두환 조형물 설치 계획이다. 전씨가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전두환 동상 조형물을 광주로 옮겨와 재판 일정에 맞춰 법원에 놓아두고 전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형물은 지난해 12월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40년을 맞아 5·18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 시민들에게 발로 차거나 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들 발길로 심하게 밟겨져 재판일까지 수리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실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족회를 중심으로 상복 퍼포먼스도 계획 중이다. 5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의 상복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전씨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광주 법원 일대에 들

러서 묵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몇 명이 참석할 지,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 는 22일 오후 4시 기념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5월 단체들 이외에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회의에서 전씨 맞이(?) 퍼포먼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 경호가 흐트러지면서 법원 일대를 아

수라장으로 만든 전례가 있던 만큼 당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전씨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회와 반성을 촉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맞고 할래?" 노래 부르라며 겁 줬다면...

재소자 협박 미결수 집유 1년

노래를 부르라며 때릴 듯 겁을 주면 노래를 부르라며 때릴 듯 겁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버지뻘되는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노래를 부르라며 협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47)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라며 "맞고 할래? 안 하면 죽는다"며 겁을 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 재소자에게 '차렷 열중숙어' 등 이른바 열차러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다른 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미결 수용중인 데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거리 수놓을 봄꽃 21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관내 취약지와 가로화단에 심을 봄꽃을 차량에 싣고 있다. 북구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메리골드, 가지니아 등의 봄꽃 3만본을 지원받아 이달 말까지 심을 계획이다.

수라장으로 만든 전례가 있던 만큼 당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전씨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회와 반성을 촉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혜민 기자choi@kwangju.co.kr

'전두환 비서 출신' 유포자 불기소 처분 불복

이용섭 광주시장, 법원에 재정신청 내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SNS 등에 주장한 유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2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은 지난 7일 이용섭 시장의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아 형사 4부에 배당, 심리하기로 했다. 재정(裁定)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 직접 고등 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놓고 '전두환 비서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故) 안병화 차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명예 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시장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유죄를 기재한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랜덤 채팅 앱서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

실제 성폭행 범죄로 이어져 '충격'

여성으로 속인 남성이 주소 주자 원룸 살던 여성 찾아가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왔다. 서로 모르던 가해남성 2명은 함께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세종시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2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는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관심을 보인 30대 중반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거주지 인근 원룸 주소를 하나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꾸며 말했다.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B씨는 A씨가 알려진 원룸에 강제로 들어간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차례로 붙잡았다. 피해 여성과 이들 두 남성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B씨는 "장난한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A씨는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A씨의) 도구에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환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한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매각공고

학교법인 서남학원 소유재산을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 입찰 매각공고 합니다.

아 래

물건소재지	토지		건물		공고번호	
	지번	지목	면적(㎡)	동수		면적(㎡)
1. 광주시 동구 월곡동(농림부지)	17492-2	답지	2,843	6(정동농사)	3,916.44	공고2020-10
2. 남원시 동동동(농림부지)	344-2	답지	1,266	17(정, 주차시설)	4,982.90	공고2020-28
3. 남원시 광혜동(농림부지)	713번지(925㎡)	학교외	400.157	11(정)	69,560.4	공고2020-30
4. 아산시 송악면 동촌리(아산법원)	347-5외 41필지	임야외	166,029	27(정)	29,761.33	공고2020-48
5. 광주시 광안구 대천동	694-1외21필지	임야외	58,216			공고2020-50
6. 광주시 남구 인곡동	신23	임야	14,281			공고2020-78
7. 광주시 남구 인곡동	신7	임야	5,088			공고2020-78
8. 광주시 광안구 상동	397-1	학교외	23,657			공고2020-88
9. 남원시 남동읍 고리리	34-2	전외	24,105	3(정동(산드림주택))	9,835.7	공고2020-98
10. 남원시 남동읍 새리	신2, 신33	임야	104,933			공고2020-108

2. 입찰방법: 방문입찰
3. 입찰공고기간: 2020.04.20. ~ 05.03.
4. 입찰서 제출 마감: 2020.05.04.(월) 14:00
5. 개찰일시: 2020.05.04. 14:00
6. 개찰장소: (학)서남학원 청산사무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상기 세부 자세한 내용(지번, 면적 등)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홈페이지 http://www.seonamhw.co.kr를 참조 바랍니다.
 2020. 04. 20.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
 주 소 : (55039)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105, 3층 (홍지서리점)
 연락처 : Tel: 063) 288-8626, 8627 Fax: 063) 288-8628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49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김광훈(1994. 12. 10.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5년 2월 25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1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김승원(1982. 11. 16.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6년 04월 03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3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최두봉(1995. 03. 22.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5년 11월 16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최두봉(1977. 11. 20.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8년 11월 30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5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최두봉(1977. 06. 27.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9년 09월 09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6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최두봉(1991. 09. 20.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9년 06월 26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19 노단 3657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한승하(1994. 05. 13.생) 등락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 최 후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천로 53(학동) 사 망 일: 2017년 03월 23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물 2020년 6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점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4월 2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259,000,000원을 금 24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 25,900주 중 보통주 1,900주를 본 회사가 회합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265,96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 발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년 4월 22일
 최혜민(대표이사) 전라남도 여수시 우동길(광주점) 대표이사 김태로

산행안내

5월2일(토) 5월22일(토) 여수 천혜의성 연도 소리도 동백꽃 팔복산 트

▲광주금강산호텔

라깅,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석자재마트앞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한곡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개례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낭**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